

번역사(翻譯史)와 번역사 연구의 개념*

최효은(Hyoeun Choi)

한동대학교

Hyoen Choi (2016), The Concepts of Translation History and Translation Historiography: *Among key research areas in Translation Studies, the historical study of translation is one of the most under-researched areas. Pym (1998: 2) points out that the reason for translation history being less approached by translation theorists is the lack of “specific theory of translation history”. In this article, on agreement with what Pym observed, the author tries to define the concepts of translation historiography and translation history. Though the concept of “translation history” may be the umbrella (or root) concept in the discussion of any specific theory of translation history, here, the concept of “translation historiography” will be first reviewed and defined. It is because of the complexities inherent in the concept of “history” itself (Gürçağlar 2013: 131). Thus in this article, the author looks into “history” related terms first, and then, applies that understanding to the discussion of a specific theory of translation history. Secondly, the concept of “translation historiography” is reviewed, maintaining the focus on the purpose of the historical research of translation. Thirdly, the concept of “translation history” is defined in the format of a dictionary headword in comparison with histories of other subject areas. (Handong University, Korea)*

Keywords : translation history, translation historiography, historical study of translation, a specific theory of translation history, the concepts of translation history

1. 서론

바스넷(Bassnett 1980: 75)은 현대 번역이론가들은 번역사(史)를 핵심 연구분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베르만(Berman 1984: 12., Santoyo 2006: 12 재인용)은

* 본고의 연구에 대한 통찰력 있는 심사평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 두 분께 감사 드립니다. 본고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보완점에 대해서는 향후 후속연구에 귀중한 지침으로 삼겠습니다.

1) 본고에서 ‘번역사’는 ‘translation history’(翻譯史)를 가리킨다. ‘translator’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번역자’(翻譯者)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현대 번역이론의 제1과제는 번역사를 구성하는 것이라고까지 한 바 있다. 그러나 번역학 내 번역사 연구의 실재는 이 같은 당위적 주장들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윌리엄스와 체스터만(Williams & Chesterman 2002: 1-30)은 번역학 연구를 12개의 분야로 세분한 바 있다. (1) 텍스트 분석과 번역, (2) 번역 품질 평가, (3) 장르별 번역, (4) 멀티미디어와 번역, (5) 번역과 테크놀로지, (6) 번역의 역사, (7) 번역 윤리, (8) 술어 및 용어론, (9) 통역, (10) 번역과정, (11) 번역교육, (12) 번역 실무론 등이 그것이다. 번역학의 제도화와 함께 대부분 분야가 양적·질적 수준을 제고해 가며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번역의 역사에 관한 연구는 그만큼의 활기를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번역사 연구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것을 목적으로 번역사 연구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번역사’(translation history)라는 개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라는 개념 자체의 내적 복잡성으로 인해 그 개념 규정이 쉽지 않게 된다(Gürçağlar 2013: 131). 이에 본고에서는 ‘역사’의 개념이 역사학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으며, 이를 번역사 연구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번역사 연구’의 경우는 학문적 정의를, 다시 말해, 번역학자들이 번역사 연구의 목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그 개념적 이해를 도모하고, ‘번역사’는 타 학문분야의 특수사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참고하여 사전적 정의문을 도출해본다.

이때 보다 기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번역사’를 먼저 정의하고 그것을 어떻게 연구하는지에 관한 ‘번역사 연구’를 그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번역사 연구’를 먼저 살펴보게 된다. 이는 ‘역사’ 개념의 내적 복잡성으로 인해, 개념으로서의 ‘번역사 연구’와 ‘번역사’ 간의 논리적 관계를 전자가 후자에 대해 선행하는 것으로 본고에서는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럼,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먼저 번역사 연구에 관한 이론적 논의의 현황과 필요성을 확인하도록 한다.

2. 번역사 연구에 관한 이론적 논의의 현황과 필요성

번역사 연구에 관한 이론적 논의의 국내 현황은 시론적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련 연구로는 유명우의 “한국 번역사 정리를 위한 시론”(2002), 김정우의 “한국 번역사 논의의 전제”(2005)와 “한국 번역사의 시대구분”(2008) 등이 있다. 두 학자 모두 2000년대 이후 국내 주요 번역학회들이 형성되며 번역학이 독립학문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가던 시기에 번역학 관점에서 번역사를 구성하고 기술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표기수단, 즉, 번역언어로서의 한국어를 중심으로 번역사를 파악하였

고,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 한국 번역사의 시대구분을 시도하였다. 김정우는 번역언어 외에도 직역과 의역 등 번역전략, 편집상 원문과 대역체재(體裁)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번역체재(體裁), 종교, 문학, 실용 등 주제분야와 관계된 내용적 측면 등에서도 시대구분의 인자를 발견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지만, 주목할 만한 요인을 찾지 못했다고 하였다(김정우 2008: 43-64). 유명우(2002)와 김정우(2005, 2008)는 엄밀하게 말하면 번역사 연구의 정체와 방법에 관한 논의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론적 논의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두 연구자의 논의 모두 핼(Pym 1998)의 번역사 연구방법론을 인용하는 등 연구방법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번역언어를 중심으로 번역사를 파악하여 시대구분을 시도하는 등, 두 학자 고유의 번역사관(翻譯史觀)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번역사 이론에 관한 후속 논의에 귀중한 토대가 된다. 이처럼 국내 번역학계의 경우 번역사 연구에 관한 논의는 소수의 중견 연구자들에 의한 시론 단계라고 한다면, 해외 번역학계의 논의 현황은 훨씬 더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해외의 번역학 관련 주요 사전·참고류를 보면 상당수가 ‘번역사’를 표제로 다루고 있다. 베이커가 편집한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라우트리지 번역학 백과사전, Baker 2001/2009), 윌리엄스와 체스터만의 *The Map: a beginner's guide to doing research in Translation Studies*(번역학 연구의 길잡이, Williams & Chesterman 2002), 강비어와 돌슬레어의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번역학 핸드북, Gambier & Doorslaer 2010), 밀란과 바트리나의 *Routledge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라우트리지 번역학 핸드북, Millán & Bartrina 2013), 샤펬의 *The Encyclopedia of Applied Linguistics*(응용언어학 백과사전, Chappelle 2013) 등이 ‘translation history’ 혹은 ‘history of translation’을 표제로 다루고 있다. 이들은 사전류의 한계로 인해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번역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실마리들을 제공한다.

번역사 연구에 관한 방법적 논의를 특집으로 기획한 학술지, 논문집의 사례도 적지 않다. *Meta*(메타)에서는 2004년과 2005년에 두 차례에 걸쳐 번역과 역사에 관한 특집호로 다루었고, 이 두 차례 특집호의 편집을 맡은 바스탱은 2006년에는 방디아와 함께 *Charting the Future of Translation History*(번역사의 미래를 논하다, Bastin & Bandia 2006)라는 제목의 논문집을 편집·출간하였다. 2012년에는 *Translation Studies*(번역학 연구)에서 5권 2호를 “번역사 방법론 다시 생각하기”라는 제목으로, 2013년에는 *MonTI*(몬티)에서 5권을 “번역학 내에서의 번역사 연구: 이론과 실제에서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2014년에는 *The Translator*(번역자)에서 20권 1호를 “번역사 이론과 방법론: 학제적 접근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각각 특집호를 기획·발행하였다.

그러나 번역의 역사에 관한 연구 사례가 아직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다 보니 특히 신진연구자 입장에서는 역사연구에 적합한 대상을 발견하여도 해당 대상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거나 역사적 관점과 관심을 견지한 가운데 연구를 구상하고 조직하

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현황의 원인에 대해 펴은 번역학이 독자적인 학문분과로 독립하는 시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받는 논문인 홈즈의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번역학의 명칭과 본질, Holmes 1972/1988)의 번역학 연구 개념도에 사각지대가 있음을 비판한 바 있다(Pym 1998: 1-4). 홈즈의 개념도가 제안하는 번역학 연구의 범위와 체계 안에서는 ‘번역에 대한 역사연구’(historical study of translation)라고 총칭할 만한 연구분야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물론 펴은 홈즈의 개념도에 따라 기술적(descriptive) 연구에 속하는 모든 연구가 자동적으로 역사연구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역사비평(historical criticism)과 같은 비기술적 연구뿐 아니라 번역사 연구에 관한 이론, 즉, ‘번역사 (특화) 이론’(specific theory of translation history)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Pym 1998: 2).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번역사 연구를 시도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번역에 대한 역사연구’라 총칭할 만한 연구분야의 부재, ‘번역사 (특화) 이론’의 부재 등으로 인해, 번역사 연구자들은 번역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A, 번역의 기능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B 등의 방식으로 여러 방법론과 틀을 건너 다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Pym 1998: 1).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우즈워스는 번역사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번역사기(translation historian)의 과업을 좀 더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in a more explicit and systemic manner)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하였다(Woodsworth 2001: 100).

필자는 펴이나 우즈워스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특히 신진 연구자의 입장에서 번역사 연구를 실행하기에 적합한 과거 시대의 번역 혹은 역사적 번역(historical translation)을 발견하여도 해당 대상에 대한 연구의 성격과 정체를 드러낼 기반이 마땅치 않아 연구를 설계하고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번역사 연구를 특화된 체계적인 이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입장에서 그 핵심 개념들을 구체화하는 작업부터 시작해보도록 한다.

3. ‘역사’의 개념과 ‘번역사’ 및 ‘번역사 연구’의 개념적 구분

역사학 이론서들을 보면 ‘역사’의 의미를 최소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한다. ‘과거의 사실로서의 역사’, ‘과거의 기록으로서의 역사’, 그리고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이 그것이다(김호연 2003: 14-24). 역사학 개론서의 고전으로 간주되는 『역사학 입문』(Einleitung in die Geschichtswissenschaft)에서 베른하임(Bernheim 1905/1985: 15-16)도 독일어에서 역사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Geschichte’ 혹은 ‘Historie’는 ‘이미 일어난 일’ 자체뿐 아니라 ‘역사지식’, ‘역사연구’, ‘역사서술’, ‘역사학’ 등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역사의 개념이 이렇게 다의적인 것을 서구적 전통에서 본다면 이 용어가 형성된 이후 그것이 가리키는 개념을 둘러싼 상황과 그로 인한 수용이 달라진 것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역사라는 용어는 어원 자체가 중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영어의 ‘history’는 라틴어의 ‘*história*’에서, ‘*história*’는 그리스어의 ‘*ἱστορία*’에서 왔다. 그런데 ‘*ἱστορία*’는 ‘조사’, ‘질문’, ‘탐구한 것을 적어 놓은 것’ 등을 의미한다. 이것은 ‘history’라는 용어를 보고 ‘과거’ 혹은 ‘과거의 사건’이라는 의미요소(의, *signified*)를 먼저 떠올리는 오늘날의 일반적인 언어감각에 비추어 보면, 기표(*signifier*)의 선택이 다소 혼란스러운 것이다.

즉, 역사라는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ἱστορία*’라는 기표가 선택된 초기에만 해도 조사, 질문 등 탐구하는 행위 자체에 의미상의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시간이 지나 기록해둔 지식이 많아지게 되자 그 지식이 가리키는 과거에 방점이 놓이게 된 것이다. 앞서 인용한 김호연(2003)이나 베른하임(1905/1985)에서 역사의 개념을 이야기하며 학문이나 연구에 관계된 의미보다 과거 혹은 지나간 일에 관계된 의미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이 같은 언어사용을 반영한다.

‘역사’의 개념이 이처럼 복잡적이다 보니, ‘역사’라고 할 때, 정확히 어떤 개념으로 쓰였는지 적절한 맥락정보가 없으면 혼란이 불가피하다. ‘번역사’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과거 실제로서의 번역사를 가리키는지, 기술된 역사로서의 번역사를 가리키는지, 혹은 번역학 내 연구분야의 하나이자 그 실제 연구 사례를 의미하는지 모호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history’라는 용어 자체가 다양하게 파생되었고, 번역사 연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시도한 연구자들도 이 점에 주목하여 관련 용어들을 소개하였다.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라우트리지 번역학사전, Baker ed. 2001)에서 ‘번역사’ 부분을 집필한 우즈웬스(Judith Woodsworth)는 다음과 같이 역사 관련 용어를 세분하였다.

- history: 내러티브 형식으로 재구성된 과거의 사건들
- historiography: 사료를 특정 원칙에 따라 조직하고 분석한 담론
- historiology: 역사를 쓰는 방법론. 그러나 이 용어는 대체로 historiography로 대체된다. 즉, historiography가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볼 수 있다.

(Woodsworth 2001: 101)

우즈웬스의 구분에 따르면, ‘history’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기술로서의 역사, ‘historiography’는 사관에 따라 기술한 담론으로서의 역사이다. 즉, 전자는 좀더 객관적인 역사를 의미한다면 후자는 주관이 개입된 역사기술을 의미한다. 그리고 ‘historiology’는 역사를 기술하는 방법론을 가리킨다. 한편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번역학 핸드북, Gambier & Doorslaer eds. 2010)에서 ‘번역사’ 부분을 집필한

둘스트(Lieven D'hulst)는 다음과 같이 개념을 나누었다.

- history: 사실, 사건, 사상, 담론 등을 적절한 원칙에 따라 배열한 것
- historiography: ① 전통적인 협의의 의미에서는 ‘역사들에 대한 역사’(history of histories), 즉, 역사 서술이라는 실무(practice)의 역사를 가리킨다. ② 광의의 의미로는 언어학, 철학, 문학, 과학 등 다른 학문 영역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historiography는 역사적 개념과 방법론, 그리고 특정 분야의 특수성, 전문성을 결합한 학문적 활동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 metahistoriography: 역사를 쓰는 데 필요한 개념과 방법론에 대한 성찰. 역사연구의 전제(presuppositions), 시대구분(time), 공간구분(space), 결과물 기술 형식(format)과 언어(metalanguage) 등에 대한 인식론적, 방법론적 논의

(D'hulst 2010: 397-398)

둘스트의 경우 우즈워스가 ‘history’와 ‘historiography’로 구분하고 있는 개념을 ‘history’ 하나의 용어 안에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historiography’의 개념도 우즈워스의 경우보다 훨씬 복잡하다. 역사학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경제사, 번역사 등 기술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특수사 혹은 그 연구활동을 가리키기도 한다. ‘metahistoriography’는 우즈워스의 historiology와 마찬가지로 역사 연구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historiography’가 어떻게 특수사라는 개념을 가리킬 수 있는냐는 앞서 우즈워스(2001)에서 비교적 객관적인 기술이나 아니면 특정 관점을 개입시킨 담론이냐의 기준에 따라 ‘history’와 ‘historiography’의 개념을 나누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 번역이나 경제 등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역사를 본다는 것 자체가 일반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역사에 대한 특정 관점, 즉, 사관을 개입시킨 특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history’와 ‘historiography’, ‘historiography’와 ‘historiography’ 내지 ‘metahistoriography’의 개념들은 기술이나 해석이나, 기술된 역사나 기술방법으로서의 역사학이나, 일반사나 특수사나, 기술 결과나 방법론이나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의미가 분리되기도 하고 중첩되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대략 도식화한 것이 그림 1. 이다.



그림 1. History 관련 용어와 그 개념장

그렇다면, 이처럼 복잡한 개념으로 얽힌 ‘history’와 ‘historiography’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번역사 연구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하는데 유의한가. 앞서 인용한 우즈워스(2001)나 돌스트(2010)는 이 점을 논하지 않았다. 번역사 연구에 관한 개론적 논의를 하면서 핵심 개념인 ‘history’와 관련 용어들의 의미를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본 것 같다. 그런데 번역사 연구에 관한 문헌들을 검토하다 보면, 둘의 구분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각 문헌들의 논의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필자는 ‘history’와 ‘historiography’의 개념을 구분하는 여러 기준, 즉, 역사나 역사학이나, 객관이나 주관이나, 일반이나 특수나, 결과이나 방법이나 가운데 결과이나 방법이나의 기준으로 둘을 구분하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역사와 역사학으로 구분하는 것은 ‘역사’라는 개념 자체의 중의성으로 회귀하는 것이니만큼 별 의미가 없다. 사관의 개입 여부에 따른 객관이나 주관이나의 구분은 그 경계가 대단히 모호하고, 사관이 개입되지 않은 역사기술이 가능한가 하는 새로운 물음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복잡하다. 일반이나 특수나 하는 기준에 따른 구분은, 이미 번역이라는 대상을 특정한 번역사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필요치 않는 구분이 된다. 따라서 필자는 두 개념을 결과와 과정 내지 방법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명쾌하다고 본다.

‘history’와 ‘historiography’를 결과와 방법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결국 ‘past’(과거)와 ‘history’(역사)를 구분하여, 과거가 역사가 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historiography’, 즉, 역사연구로 보고, 역사연구에 따른 결과를 역사로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Munslow 2006: 142). 또한 이는 ‘history’의 개념을 ‘역사가에 의해 행해지는 조사활동’과 그 ‘조사의 대상으로서의 과거’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카(Carr 1961: 23)의 구분과도 상통하는 면이 있다. 다만 먼슬로(2006)의 입장에서 카(1961)의 견해를 이해한다면, 카는 번역사 연구의 결과로서의 역사 보다는, 그 연구 대상으로서의 과거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 같이 ‘역사’ 개념을 구분할 경우, 앞서 인용한 우즈워스(2001)나 돌스트(2010)가 역사 연구방법론을 가리키기 위해 ‘historiology’, ‘metahistoriography’ 등과 같은 별도의 용어를 상정한 것과 같은 조치를 필요치 않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 같은 구분은 ‘번역사’ 자체를 정의하기 위해 애쓸 필요 없이 번역사 연구방법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그 결과물을 번역사의 구성물들로 간주하면 되어, 이론적 논의에 있어 상당한 편의성을 부여한다. 실제로 번역의 역사에 관한 번역학자들의 문헌들을 검토해 보면, ‘번역사’를 정의하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어도 그 내용은 ‘번역사 연구’, 즉, 번역사를 왜 어떤 목적에 따라 연구하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번역사 연구자들의 기존 언급을 통해 그 실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번역사 연구’의 개념: 학문적 정의

여기에서는 번역사 연구의 개념에 관한 기존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봄으로써 그 개념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먼저 김정우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한국 번역사라는 명제에는 한국이라는 제한된 연구 범위와 번역 현상이라는 연구 대상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역사적인 검토라는 연구방법론이 함의되어 있다. 이를 번역의 실제 도구인 언어의 측면에서 다시 해석해보면, 한국 번역사는 한국어와 인근 외국어들과의 상호교섭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김정우 2005: 140-141)

김정우(2005)가 번역현상을 역사적으로 검토하며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어와 다른 언어들간의 상호교섭이다. 번역이 언어를 수단으로 하는 고도의 언어활동임을 감안하면 번역을 통해 언어간 상호교섭의 역사적 변천양상을 관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학문적 시도이다. 그러나 번역사 연구의 초점이 번역의 수단으로서의 언어에 대한 이해 증진이 아닌 경우도 있다.

번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시대에 어떤 책이 어떻게 번역되었는가를 추적하는 것이다. 동시에, 번역을 담당해온 사람들에게 조명을 가하는 일이다. 사실 번역가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거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같은 번역사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번역론의 추이를 중심에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경우는 가급적 번역가라는 인간의 모습을 추적하고 싶었다.

[辻由美(쓰지 유미) 2001: 14-15, 19]

쓰지 유미는 번역사를 연구함으로써 그간 역사의 주인공으로 거론된 바가 거의 없는 번역자들을 조명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번역이라는 실무 혹은 실천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있어 번역사는 그들이 어떤 맥락에 속해있는가를 알게 하는 실존적인 문제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번역사를 연구하는 목적은 역사적 주체로서의 번역자의 자기발견이 되고, 그렇게 연구된 번역사는 언어사나 문학사 보다는 역사의 효용을 인간의 자기발견에 둔 역사연구 일반의 목적에 보다 긴밀한 관련을 맺게 된다. 역사 주체로서의 번역자에 대한 주목은 결국 좀더 넓은 범위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번역학의 윤리적 과업은 궁극적으로 문화간 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이고, 번역사의 과업은 그러한 문화간 관계에 관한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지 텍스트와 시간과 장소, 이름들에 관한 기초 데이터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우리는 사람들간의 역할을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인간적 상호작용이 개입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Pym 2009: 23-24)

핍은 문화간 관계에 관한 내러티브를 형성하기 위해 번역사를 연구한다고 했다. 이 같은 목적의 번역사 연구에서는 인간의 상호작용과 관련자들의 역학이 주요 관찰 대상이 된다. 또한 번역자뿐 아니라 번역 현상에 개입되는 다양한 인자(agents) 간의 네트워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O'Sullivan 2012: 131).

핍의 이 같은 견해는 앞서 인용한 쓰지 유미가 같은 문헌의 다른 곳에서 번역사란 다른 문화와의 관계를 발견해가는 역사이기도 하다고 한 것이나(辻由美 2001: 145), 번역사를 추적해가는 과정은 곧 지하수맥에 흐르는 또 하나의 문화사를 만나는 과정이었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다(ibid.: 17). 번역에 관한 사회·문화적 관점과 번역자에 대한 주목은 상호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핍은 *Method in Translation History*(번역사 연구방법)에서 번역사는 국제관계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의 중요한 자료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Pym 1998). 이 같은 관점은 번역사 연구가 단지 번역학만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전제한다. 비슷한 견해를 런들(Rundle)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번역사를 이야기할 때 거의 자동적으로 전제하게 되는 팽배한 가정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바로 (1) 번역사는 반드시 번역학이라는 준거의 틀 안에서 ‘번역사의 구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가정이다. 나는 번역학 내 번역사 연구자들이 잠재적으로 대단히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다른 대안을 고려해보기를 희망한다. 케네디(J. F. Kennedy)의 수사를 빌리자면, 역사가 번역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2) 번역이 역사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Rundle 2012: 239)

여기에서 런들은 두 가지의 연구목적을 대비시키고 있다. 하나는 번역사 연구를 통해 번역사 자체의 구성과 기술에 기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번역을 통해 연구대상이 된 역사에 관한 지식의 축적에 기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런들은 전자의 연구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주제분야를 막론하고 편재하는 사회·문화 현상으로서 번역이 가지는 역사적 함의와 역사를 들여다보는 창으로서의 번역의 역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올로한(Olohan)도 번역사의 연구목적은 비슷하게 구분한 바 있다.

번역사는 (나)역사 속에서의 번역의 역할을 관찰하거나 조사하는 것 혹은 (가)번역 자체를 역사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역사연구에 관한 이러한 상이한 관점은 연구목적에서나 접근, 개념, 방법, 학문적 대화상대 등에서 차이를 만든다.

(Olohan 2014: 9)

올로한의 (가), (나)는 각각 런들의 (1), (2)와 상통한다. 다만 런들은 (1)이 아닌 (2)를 강조함으로써 두 가지의 목적을 배타적인 관계로 보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

다(Hermans 2012: 244, St-Pierre 2012: 240, Delabastita 2012: 246). 올로한은 어느 한 가지를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두 가지 목적을 선택적인 관계로 보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이들과 유사하게 번역사 연구의 목적을 구분하지만 배타적이거나 선택적인 관계가 아닌 절차적인 차원에서 보는 견해도 있다.

번역사는 미술사 혹은 문학사와 다를 것이 없다. 미술이나 문학도 그 자체로는 아무런 유기적 통일성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작품들이나 관련 담론들을 직조하여 어떤 일련의 구별 가능한 연속을 구성한다. 이 연속체 자체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해당 연구자가 거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담론과 유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쨌든 간에 이 연속체를 구성하는 것이 주어진 역사 속에서 문학이나 미술의 함의를 읽어내는 것의 선결조건이 된다는 데에는 역사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번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번역사 연구도 이런 관점에서 두 단계의 과정을 기억해야 한다. 먼저 [1단계]특정 시대와 환경 속에서 번역이 어떠한 지에 관한 아이디어를 형성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2단계]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Hermans 2012: 244)

헤르만스는 번역사 연구의 두 가지 목적을 배타적이거나 선택적인 관계가 아닌 절차적인 관계로 파악하였다. 먼저 특정 시대와 환경 속에서 번역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그 맥락 속에서 번역이 한 역할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런들과 올로한, 헤르만스는 번역사 연구목적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비교, 대조하고 있는데, 그 구분이 서로 유사하다. 하나는 번역사 자체의 구성을 목표로 하는 연구, 즉, 번역의 역사에 대한 고찰이다. 다른 하나는 번역을 통해 (번역사만이 아닌 일반사나 문화사 등 보다 포괄적인 차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번역의 역할을 조명하는 연구이다.

필자는 런들(2012)이나 올로한(2014), 헤르만스(2012)의 견해에서 도출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번역사 연구는, 어떤 역사적 번역(historical translation)이나 시대를 선정하여 연구하든지 간에 번역의 역사 자체의 구성과 번역을 통해 특정 역사적 사안이나 시대를 이해하는 두 가지 목적 모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어느 방향에 좀더 비중은 두느냐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각각의 목적에 따른 연구는 특징상의 차이가 있다. 필자의 이해에 따르면 번역의 역사에 관한 연구는 번역사를 구성하고자 하는 번역학 고유의 관심이 연구동기가 된다. 그러나 그 같은 동기에 따른 연구라 하더라도 비교적 신생학문일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학제적 성격을 가지는 번역학의 성격상 그 내용은 타 학문영역에서 이미 수립해둔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축적될 수밖에 없다. 반면 번역을 통해 역사를 바라보는 연구는 연구동기는 타 학문영역이 이미 관심을 가지는 사안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안을 번역학적 방법, 예를 들어 번역 텍스트분석 등의 방법으로 재조명하거나, 텍스트분석이 아니더라도 번역이 이루어지는 양적 추이 및 방향 등을 관찰함으로써 정

차·경제적 흐름을 파악하는 연구가 여기에 속하겠다(Rundle 2012 참고). 어느 연구 목적에 초점을 맞추든지, 번역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이든, 관심을 가지는 역사적 사안의 환경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든 일정 수준으로 조사되고 구성될 수 있다.

표 1. 번역사 연구의 두 가지 목적 비교

	번역의 역사에 관한 연구	번역을 통해 역사를 이해하는 연구
연구 목적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역학이라는 틀 안에서 번역사 자체의 구성에 기여 ● 번역을 통시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 특정 시대와 환경 속에서 번역과 번역을 둘러싼 환경이 어떠했는가를 조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역이 특정 역사적 사안이나 시대를 이해하는 데 어떤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초점 ● 특정 시대와 환경 속에서 번역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평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역학 고유의 관심에 집중된 역사연구 ● 타 학문영역의 연구 성과를 번역학의 관심에 따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학문영역의 관심사(해당 역사적 사건 내지 시대)를 번역학적 방법으로 재조명

한편 번역사 연구는 앞서 살펴본 핼(1998, 2009)과 쓰지 유미(2001)가 피력한 바와 같이 번역사 연구가 그간 역사의 주체로서 그다지 주목 받지 못했던 번역자들에게 조명을 가하는 작업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번역자를 역사의 한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필요하다는 당위적 측면 외에도 그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함으로써 당시 번역이 그 인적 정체(human identity, Pym 2012: 13) 측면에서는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는 실질적인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기존 번역사 연구자들의 언급을 중심으로 특히 그 연구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번역사 연구’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도모해 보았다. 한편 본고에서 ‘번역사’는 이 같은 연구 과정의 결과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역사’ 개념의 복잡성으로 인한 조치라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개념으로서의 ‘번역사’는 언어적인 차원에서 ‘번역의 역사’ 등으로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반면, 실제 연구를 해야 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목적과 방법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번역사 연구’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개념 규정이 논리적으로는 타당하다 하더라도 이론적 논의에서 그 핵심 개념에 대한 정돈된 정의문을 갖지 않는 것은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다. 이에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번역사’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시도해보도록 한다.

5. ‘번역사’의 개념: 사전적 정의

먼저 ‘번역사’라는 개념이 사전적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대표적인 우리말 대사전인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 사전』(1992),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1999), 연세대의 『한국어사전』(1998), 고려대의 『한국어대사전』(2009) 등 4종을 살펴본 결과, ‘번역사’ 혹은 ‘번역사 연구’를 표제어로 등재하고 있는 사전은 없었다. ‘번역학’이라는 용어를 표제어로 등재하고 있는 사전도 살펴본 4종의 사전 가운데 가장 최근에 편찬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의 『한국어대사전』, 한 권에 불과했다.

학문분과로서 성립된 역사가 오랜 학문분야의 경우 해당 분야의 명칭에 관한 표제어의 수가 많을 뿐 아니라 그 분야에 관한 교육이나 세부적인 연구 영역을 지칭하는, 이른바 학문 관련 표제어들이 다양했다. 예를 들어, ‘경제’ 분야의 경우, ‘경제가’(經濟家), ‘경제 가치’, ‘경제 개발’ 등 관련 표제어의 수가 138개, 이 가운데 ‘경제사회학’, ‘경제성 공학’, ‘경제원론’ 등 학문 관련 표제어가 28개인 것에 반해, 번역의 경우 ‘번역권’, ‘번역본’ 등 관련 표제어가 26개, 그 가운데 학문 관련 표제어로 분류할 만한 것이 ‘번역문학’과 ‘번역학’, 2개 정도였다.

표 2. 분야별 학문 관련 표제어, 『한국어대사전』(2009)

분야	언어	문학	경제	정치	음악	미술	번역
학문 관련 표제어	비율 29% (17/57)	23% (10/42)	20% (28/138)	20% (19/92)	35% (14/40)	46% (13/28)	7% (2/26)
예시	언어철학 언어지리학 언어분석 언어계통론 ...	문학사회학 문학사조 문학관 문학자 ...	경제계산론 경제심리학 경제인류학 경제결정론 ...	정치철학 정치심리학 정치외교학 정치과정론 ...	음악미학 음악교육 음악심리학 음악학교 ...	미술비평 미술론 미술대학 미술고고학 ...	번역문학 번역학

(비율 = 학문 관련 표제어/관련 표제어 전체)

표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살펴본 다른 분야의 학문 관련 표제어의 비율은 대략 29% 정도였다. 번역처럼 실무의 역사도 길고, 더불어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이론이 발전해온 음악과 미술의 학문 관련 표제어의 비율이 각각 35%와 46%로 상당히 높은 것이 눈에 띈다.

번역사가 현재 우리말 사전의 표제어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사전 참고를 통해 번역사를 정의하는 일을 시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번역사와 동류(同類)에 속하는 다른 특수사²⁾들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번역사

2) 차하순(1995: 11-75)은 역사의 종류를 크게 일반사와 특수사로 구분하였다. 일반사란 정치, 사회, 경제, 법, 문화, 종교, 사상, 예술, 관습 등 인간활동 전 분야의 역사적 요소들을 합산한 종합적

를 형식적 차원에서 정의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번역학’이라는 술어를 표제어로 등재하고 있는 『한국어대사전』(2009)에서 ‘언어’, ‘문학’, ‘정치’, ‘경제’, ‘음악’, ‘미술’, ‘번역’ 등의 학문 분야와 그 관련 역사 표제어의 정의문을 살펴보았다. ‘언어’와 ‘문학’은 학문으로서의 번역학이 현재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유관 분야이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는 학문으로서 다뤄져 온 역사가 길고 축적된 지식의 양이 많다고 여겨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음악’과 ‘미술’은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하나의 기술이자 예술로서 교육과 훈련을 목적으로 이론을 발달시켜 학과를 형성하였고, 그 실제의 역사가 장구하다는 측면에서 번역과 유사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았다.

살펴본 분야들이 대부분 관련 역사의 표제어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 해당 분야의 역사가 독자적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여부가 학문의 성숙 정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미술’의 경우, ‘미술학’은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미술사’는 있었다. 이것은 미술의 실제로서의 역사의 비중이 학문분과로서의 비중에 비해 크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학문분과로서의 위상과는 별개로 관련 실체가 정리되고 기술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사례이기도 할 것이다. 학문의 역사에 비해 긴 실제의 역사를 가진 번역 분야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구체적인 정의문들의 형식을 살펴보면, ① ‘음악에 관한 역사’로 정의된 ‘음악사’처럼 간략한 정의문도 사전적으로 통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② 해당 분야의 정의에 생성, 변천, 변화, 발전, 과정, 현상, 실제 등의 개념어를 더하여 정의되고 있는 경우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②와 성격상 중첩이 불가피하기도 하지만 해당 분야의 실제로서의 역사와 그것에 관한 학문활동의 경계가 미묘한 채로 정의된 경우도 볼 수 있었다. ③ “말의 형성과 발달에 관한 역사. 또는 그것을 연구하는 언어학의 한 부문”이라고 정의된 ‘언어사’나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정의된 ‘문학사’ 혹은 ‘정치사’의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인 전체사를 말한다. 반면 특수사란 인간활동의 개별적인 분야 혹은 지역, 인종, 문화의 특수한 발달을 취급하는 역사를 의미하며, 미술사, 과학사, 복식사 혹은 인디언의 역사, 서울시의 역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같은 구분에서 볼 때 번역사는 당연히 특수사에 해당한다.

표 3. 분야별 학문 및 역사 관련 표제어와 정의문

표제어	정의문
언어학	(명)[언어] 언어를 음운, 문자, 문법, 어휘 따위의 각도에서 접근하고 고찰하여 그 특성을 연구하는 학문
언어사	(명)[언어] 말의 형성과 발달에 관한 역사. 또는 그것을 연구하는 언어학의 한 부문
언어학사	(명)[언어] 언어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이 변화, 발전되어 온 역사. 또는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
문학	(명)(1)[문학] 사상이나 감정을 상상의 힘을 빌려 언어로 표현한 예술 또는 그 작품. (2)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을 제외한 문학, 사학, 철학, 심리학 등의 학문을 통틀어 이르는 말
문학사	(명)[문학] 문학이 발생하고 발전해 온 역사. 또는 그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
정치학	(명)[정치] 정치 및 정치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 정치 이론, 정치 철학, 정치 사상, 정치사, 비교 정치, 정치 과정, 국제 정치, 행정학, 정책학 따위로 나뉜다.
정치사	[정치] (1)정치의 역사, (2)정치적 사실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학문
경제학	(명)[경제] 인간 사회의 경제 현상, 특히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교환, 소비의 법칙을 연구하는 사회 과학의 한 분야. 연구 목적과 방법에 따라 실증 경제학과 이론 경제학, 연구 대상의 범위와 방법에 따라 미시 경제학과 거시 경제학으로 나뉜다. 국민 경제학, 경영학, 재정학, 가정학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국민 경제학을 이른다.
경제사	(명)[경제] 인간의 경제 활동의 구조, 발전, 진보 과정 등 경제 현상 전반의 역사
경제사학	(명)[경제] 인간의 경제 활동의 구조, 발전, 진보 과정 등 경제 현상 전반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
경제학사	(명)[경제] 경제학의 생성과 발전에 관한 역사, 경제학설사
음악학	(명)[음악] 음악에 관한 여러 주제를 연구하는 학문. 그 주제에 따라 음악사학, 음악 미학, 음악 심리학, 음악 사회학, 음악 음향학, 악기학, 민족 음악학 등으로 나뉜다.
음악사	(명) 음악에 관한 역사
음악사학	(명) 음악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
미술학	-
미술사	(명) 회화, 조각, 건축, 공예 등 미술의 변천과 발달 과정 전반에 관한 역사
번역학	(명) 어떤 언어로 된 글을 다른 언어의 글로 옮기는 방법이나 그 실재를 연구하는 학문
번역사	-

이러한 정의문 기술 방식들에 준하여, ‘번역사’가 사전의 표제어로 등재되는 경우를 생각해 정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정의문이 가능할 것이다.

www.kci.go.kr

표 4. 사전적 표제어로서의 '번역사'의 정의문

번역사: ① 번역에 관한 역사. ② 한 언어로 된 글이 다른 언어로 옮겨지는 과정 전반과 그 실제에 관한 역사. ③ 언제, 어디서, 무엇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번역되었는 지에 관한 역사, 또는 그것을 연구하는 번역학의 한 부분.

상기 정의문에서 ①은 '음악사'처럼 번역에 대한 지식을 이미 전제한 방식이고, ②는 ①에서 '번역'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정의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한국어대사전』이 기술하고 있는 '번역'의 사전적 정의문을 활용하였다. ③의 경우는 앞서 '언어사' 등의 경우처럼 번역사의 연구대상을 밝힘으로써 번역사를 정의한 것인데, 번역사의 연구대상으로는 둘스트(D'hulst 2010: 399-403)의 정리를 참고하였다. 이상 타 학문분야의 역사 관련 표제어들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살핌으로써 '번역사'에 대한 사전적·형식적 정의문을 도출해보았다.

6. 결론

번역사 연구는 그간 필요성은 강조되어 왔지만 번역학 연구의 여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던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으나 필자는 핼(Pym 1998)의 견해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번역사에 특화된 이론의 부재를 그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번역사 연구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체계적인 이론을 수립해갈 것을 목적으로 그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는 '번역사 연구'와 '번역사'에 대한 이해와 개념 규정을 시도하였다.

먼저 '역사' 개념이 가지는 의미적 복잡성을 해소하고, '번역사 연구'와 '번역사', 두 개념 간의 논리적 관계를 분명히 하였다. 번역사 연구는 번역사를 구성해내기 위한 과정으로, 번역사는 번역사 연구의 결과로 규정한 것이다. 개념상으로는 '번역사'가 일종의 우산 개념(umbrella concept), 즉, 대표 개념에 해당하지만, 연구 실행을 위해서는 '번역사 연구'의 개념을 밝히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것도 두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한 이 같은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어서 기존 번역사 연구자들의 견해를 토대로, 번역사 연구는 번역학의 틀 안에서 번역사 자체의 구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또는 번역을 통해 특정 역사적 사안이나 시대를 이해할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자는 대체로 번역학 고유의 관심사로서 문학사, 출판사, 언어사 등 그간 인근 학문영역에서 축적해온 연구 성과를 번역학의 관점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타 학문영역에서 이미 알려지거나 관심을 가질만한 역사적 사안을 번역에 대한 조사

및 번역텍스트분석과 같은 번역학적 방법을 통해 재조명함으로써 해당 시안에 대한 지식의 축적에 기여하는 연구이다. 번역사 연구가 가지는 이 두 가지 연구 목적은 연구를 심화해 가는 과정의 단계적인 목표들로 인식되기도 하고(Hermans 2012), 번역사 연구에 내재하는 학제적 긴장으로 파악되기도 한다(Rundle 2012). 필자는 헤르만스나 런들의 통찰이 실제 번역사 연구에서 동시에 개입될 수 있다고 본다(구체적인 사례는 최효은 2016 참고).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타 학문분야의 특수사들이 사전적으로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번역사가 사전의 표제어로 등재될 경우 어떤 정의문으로 기술될 수 있는지를 예측해 보았다. 이 같은 작업의 이유는, 본고에서는 번역사라는 개념을 번역사 연구의 결과로 규정하여 이론적 논의의 초점을 번역사가 아닌 번역사 연구로 옮기기는 하였으나, 번역사 자체에 대한 최소한의 형식적 정의문을 가지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는 번역사 연구에 특화된 이론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그 핵심 개념들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들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가 번역사 연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관련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 김남희 (2012). 통역의 역사 개관: 고려시대까지. 『통번역학연구』 18(1): 1-19.
- 김정우 (2005). 한국 번역사 논의의 전제. 『우리말연구』 16: 139-161.
- 김정우 (2008). 한국번역사의 시대 구분. 『번역학연구』 9(1): 29-69.
- 김호연 (2003). 『역사란 무엇인가』 (2판). 울산: 울산대학교 출판부.
- 十由美(쓰지 유미) (2001). 『번역사 산책』 (翻譯史のブロムナード). 이희재 역. 서울: 궁리출판.
- 유명우 (2002). 한국 번역사 정리를 위한 시론. 『번역학연구』 3(1): 9-38.
- 최효은 (2016). 번역사 연구방법을 통한 ‘단권 성경주석’(1934)의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assnett, S. and Lefevere, A. (eds.) (1990). *Translation, history, and culture*. London: Pinter.
- Baker, M. (ed.) (2001).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New York: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 Baker, M. (ed.) (2009).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2nd ed.)*. London/ New York: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 Bastin, G. L. and Bandia, P. F. (eds.) (2006). *Charting the future of translation history*. Ottawa/ Ontario: University of Ottawa Press.
- Berman, A. (1984). *L'épreuve de l'étranger: Culture et traduction dans l'Allemagne romantique*. Paris: Gallimard. (Trans. Heyvaert, S. (1992) *The Experience of the Foreign: Culture and Translation in Romantic Germany*.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Bernheim, E. (1985). 『역사학입문』(Einleitung in die Geschichtswissenschaft). 박광순 역. 서울: 범우사.
- Carr, E. H. (1961). *What is History?* New York: Vintage Books.
- Chapelle, C. A. (ed.) (2013). *The Encyclopedia of Applied Linguistics*. Chichester/West Sussex: Wiley-Blackwell.
- D'hulst, L. (2010). Translation History. In Gambier, Y. and L. Doorslaer (eds.)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 Co., pp. 397-405.
- Delabastita, D. (2012). *Response*. *Translation Studies* 5(2): 246-248.
- Gambier, Y. and L. Doorslaer (eds.) (2010).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 Co.
- Gürçağlar, S. T. (2013). Translation History. In Millán, C. and F. Bartrina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New York: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131-143.
- Hermans, T. (2012). *Response*. *Translation Studies* 5(2): 242-245.
- Holmes, J. (1972/1988).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 In Venuti, L. (ed.) (2004).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2nd ed.)*. London/New York: Routledge, 180-192.
- Millán, C. and Bartrina, F. (eds.) (2013). *The Routledge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New York: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 Munslow, A. (2006). *The Routledge Companion to Historical Studies*. New York: Routledge.
- O'Sullivan, C. (2012). Introduction: Rethinking methods in translation history. *Translation Studies* 5(2): 131-138.

- Olohan, M. (2014). History of Science and History of Translation: Disciplinary Commensurability? *The Translator* 20(1): 9-25.
- Pym, A. (1998). *Method in Translation History*.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Pym, A. (2009). Humanizing Translation History. *Hermes* 42: 23-48.
- Pym, A. (2012). *On Translator Ethics: Principles for Mediation between Cultures* (Trans. by Heike Walker).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 Co.
- Rundle, C. (2012). Translation as an approach to history. *Translation Studies* 5(2): 232-248.
- Santoyo, J. (2006). Blank Spaces in Translation History. In Bastin, G. L. and Bandia, P. F. (eds.) *Charting the future of translation history*. Ottawa/Ontario: University of Ottawa Press, 11-43.
- St-Pierre, P. (2012). Response. *Translation Studies* 5(2): 240-242.
- Williams, J. and Chesterman, A. (2002). *The Map: A beginner's guide to doing research in Translation Studies*.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Woodsworth, J. (2001). History of Translation. In Baker, M. (ed.)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New York: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100-105.

This paper was received on 20 April 2016; received in revised form on 14 May 2016; and accepted on 20 May 2016.

Author's email address

sam.ch3@outlook.kr

About the author

The author obtained her doctorate (Ph. D.)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tudies at Ewha Womans University, and is currently a lecturer of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at Handong University. With a professional experience as a translator for Christian books, her main research interest is in translation of Christian texts and translation history of Christian literatures in Korea.